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음 10월 1일) 제289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도, 국가예산 확보 '천리길' 걷다

송 지사, 국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국회 부의장·민주 원내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만나 핵심사업 지원 협조 당부

송 지사는 전북도지사가 4일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해 광주에서 서울까지 천리행군을 펼치며, 국회 집중 공약을 이어갔다.

송 지사는 지난주 각 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방문해 상임위 단계 공히 작정을 펼친 데 이어, 이날은 양당 핵심 인사를 만나 전북 신산업지도 완성을 위한 동력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연이은 국회 강행군에 나선 배경은 상임위 심사와 더불어, 예결위 심사가 5일부터 본격 시작되고, 내년도 예산이 오는 12월 2일이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남은 한달이 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북도 신산업 육성 과 기반 구축을 위한 도 핵심사업 15건의 예산 반영 협조 요청과 함께, 최근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된 전북사업 5건에 대한 해결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등 당 핵심 인사가 참석함에 따라,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송 지사는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환경오염 피해지역 친환경복원 사업 등 분야별 핵심사업 15건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4일 국회를 방문한 송 지사가 김상희 국회 부의장(사진 왼쪽)을 찾아 전북도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입법과 현안 추진에도 국민의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힘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된 '군산 증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등 5건은 전북 발전을 위해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호남동행, 전북동행의 힘을 실감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관련 사업비의 전액 반영에 적극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송 지사는 곧바로 국회로 직행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광복 행보를 펼치며, 동분서주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의섭 예결위수석전문위원 등을 차례로 만나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조사 매입, '전라유학진흥원 건립'·'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등 핵심사업이 국회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시설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이 내년도 착수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김제시 백구면에 시설 조성이 완료되는 스마트팜 혁신벨리가 성공적으로 가동돼 전국최초의 청년·농민·농부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벨리' 창농·실증 지원서비스' 사업비 반영도 함께 건의했다.

이처럼 여야를 넘나드는 광복 행보를 이어가며, 국회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송 지사는 오는 15일 주간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양당 간사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기재부 예산 키맨을 차례로 만나 도 주요사업의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기재부 국가재정사업평가위 통과... 지역 숙원 해결 '청신호'

전북도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이번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예타 선정은 전북도, 군산시, 해수부와 이원택, 신영대 국회의원 등 행정과 지역 정치권이 원팀이 돼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다.

군산항은 하구둑 항만의 특성상 매년 유지준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준설토의 투기장 확보가 절대적이며, 현재 투기장으로 사용 중인 금란도는 이미 포화상태로 추가 투기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지난해 12월 항만기본계획에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반영하고,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새만금난단 매립토로 활용 가능 여부 검토 등을 이유로 선정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논리적 대응을 위해 올해 3월 전문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해수부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건의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번 심사에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내년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기본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전망이다.

제2준설토 투기장은 군산항 7부두 옆 서방파제 측면에 국비 4,287억 원을 투자해 호안 4,170m, 가호안 1,160m, 215만㎡의 규모로 건설, 향후 30년간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된다. /유호상 기자

## "앞으로의 3년, 지속가능 발전 도약기"

강병재 신임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취임

새만금개발공사 제2대 강병재(姜秉載) 사장이 4일 취임했다.

강병재 사장은 새만금개발공사 상임이사 출신으로 지난 2018년부터 개발사업본부장을 역임하며, '친수', '친환경', '스마트'라는 3대 컨셉을 담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133,000억 규모의 도시조성 사업을 조기에 착공시켜, 내·외부에서 업무 전문성과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내부 출신 사장으로 조직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신속한 업무 파악과 신규사업 발굴 등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년 초기였던 지난 3년을 새만금 사업의 정착기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3년을 새만금개발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약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어, "시장과 수요자의 니즈가 경영에 반영되는 ▲고객 중심 경영,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환경·안전 중심 경영,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변화 중심 경영을 3대 경영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항만경제특구, 수소복합단지 조성, 케이블카 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사업 모델 개발 등 신사업발굴과 업역 확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로 지역사회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공사 임직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병재 사장은 전남대를 졸업하고, 충북대에서 도시환경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87년 K-water(前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해 건설관리단장, 연구기획처장, 전북지역본부장, 금·영·섬 권역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윤상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수칙 준수가 '지름길'

토·일요일 신문 쉽다

축전주매일 창간

용담댐 준공 20주년

생명수를 공급하는 용담댐은  
당당하고 자랑스런  
진안의 희망입니다

20년 전,  
진안읍, 상전면, 안천면, 용담면, 주천면, 정천면 등 6개 읍·면  
68개 마을 2,864세대, 12,616명의 수물민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20년 후,  
현재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진안, 충남 서천, 금산 등  
8개 시·군 130만 명이 편안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안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할머니를 투쟁 역사, 내 집 없던 날, 정천면 시장 교회 철거, 2001년 준공식, 2001년 준공 기념

진안고원 JINAN GORWON